

한·EU FTA 체결에 따른 수출 유망 품목 | 버섯 |

2011. 11

... 머리말 ...

2011년 7월 1일 한·EU FTA의 발효로 인해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경제권이 활짝 열렸습니다. 2010년 기준 EU의 GDP는 16조 3천억 달러로 미국의 14조 7천억 달러를 능가하며, 이는 세계 전체 GDP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또한 EU의 농림수산물 수입 규모는 1,832억 달러(역외교역 기준)로 일본의 895억 달러의 2배 규모이며 일본,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4위 수출 시장입니다. 이러한 EU와의 FTA 체결로 우리 농림수산식품의 유럽 시장 진출 통로가 더욱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aT는 유럽 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를 위하여 EU 27개국 중 한국 농림수산물 수입 규모 및 현지 식품 시장 규모가 큰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비교적 큰 품목 중 한국산으로 대체 가능하며, 한·EU FTA 발효 시 관세 철폐 대상인 버섯, 과실류, 차, 소스류 등 9개 품목을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조사는 품목별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로테르담 aT센터를 통해 한국 농식품의 현지 시장 경쟁력과 시장 확대 여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료집이 한·EU FTA의 기회를 100%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한국의 FTA 허브 전략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사개요 및 조사요약



조사 개요

I.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일본,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4위 교역국이자 수출시장인 EU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對 EU 수출 확대 가능 품목에 대한 EU 지역 내 경쟁력 수준 및 수출 확대 가능성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농수산물 수출 다변화 모색

☐ 조사 필요성

- 관세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시장 진입 유망 품목 및 수출 경쟁력 강화 품목 발굴

☐ 조사 품목

- 면류, 과자, 소스류, 과일, 버섯, 건강보조식품(인삼), 해조류(김), 차류, 음료 (9품목)

☐ 조사 대상국

-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4개국)

☐ 주요 내용

- 시장개요
- 유통동향
- 소비동향
- 수입동향
- 통관 및 수입검사
- 한국산 수출 확대 방안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기간 : '11년 5월 ~ 9월
- 조사방법 : 로테르담 aT센터

II. 주요 조사 내용 요약

버섯류

가. 영국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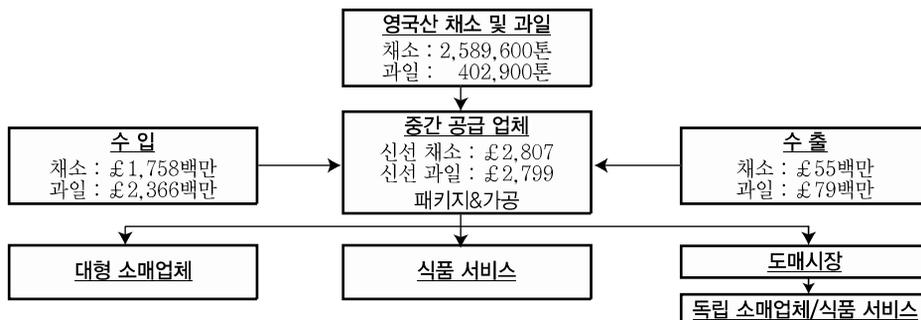
- 2009년 영국의 버섯 시장규모는 5억 3천만 파운드로 2006년의 4억 6천만 파운드, 2008년의 5억 파운드에서 꾸준히 성장 중임
- 2008~09년 동안 버섯의 시장규모는 6% 성장했으며, 2004~09년 기간에는 23%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생산동향

- 2009년 영국의 버섯 및 트러플 생산량은 1만 5천 톤으로 2006년의 2만 4천 톤, 2007년의 1만 9천 톤과 비교하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Freshinfo에서 발간한 채소 시장 보고서인 'Vegetable Supplement'의 영국 버섯 시장 분석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 영국 내에 약 350개의 버섯 농장이 있었으나 현재는 20~3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음
- 영국의 버섯 생산량은 실제 수요량의 25~30%에 불과하여 부족한 부분은 아일랜드, 폴란드, 네덜란드 등에서 수입하고 있음

유통동향

- 버섯을 비롯한 신선 채소 유통구조는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약 4단계로 요약될 수 있어 상당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㉔ 수입동향

- 2010년 영국이 수입한 버섯 중 주름버섯속(Genus Agaricus) 버섯류의 경우, 수입액은 2억 2천만 달러, 수입량은 7만 9천 톤임
- 2010년 영국이 수입한 버섯 중 기타 버섯류의 경우, 수입액은 5천 6백만 달러, 수입량은 1만 9천 톤임

㉕ 통관 및 수입검사

- 유럽 지역의 버섯류를 포함한 채소류 통관 거부 사례를 분석해 보면 독소 및 중금속 검출, 위생 및 패키지 상태 불량, 곰팡이 발생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㉖ 한국산 수출 확대 방안

- 영국에서 판매 중인 표고버섯, 새송이 버섯, 팽이 버섯은 대부분 한국산 또는 중국산이며, 중국산 제품 중에는 유럽의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어 유기농 인증을 획득할 경우,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 할 수 있음
- 한국산 버섯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버섯과 달라 소비자들이 낯설어하므로 제품 포장 뒤에 어떻게 영국 소비자들의 기존 식단에 응용할 수 있는지 조리법 기재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박람회 참가와 산업 관련 잡지를 통한 광고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약 2달에 걸쳐 수송되는 동안 버섯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버섯 패키지의 개선을 통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나. 네덜란드

㉔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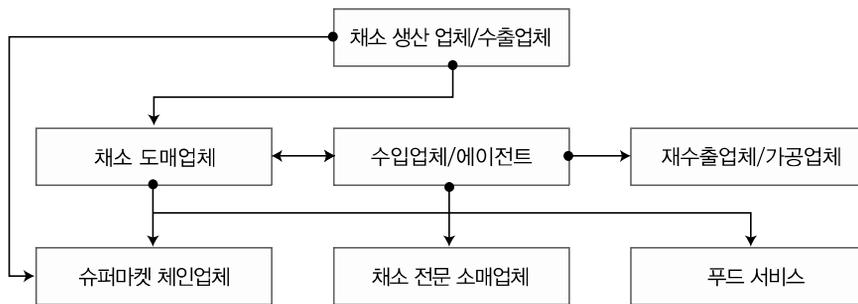
- 2008년 네덜란드의 버섯 생산규모는 약 4억 달러, 한화 약 4,263억 원, 25만

5천 톤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이며, 유럽에서는 최대 버섯 생산국임

- 네덜란드의 버섯 재배는 생산 방식에 따라 기계 생산 방식과 수작업 생산 방식으로 나뉘며, 이 두 가지 생산 방식에 따른 생산 면적은 매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각각 면적 비율이 48%, 52%로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음

유통동향

- 네덜란드의 신선 채소 및 채소의 유통 구조는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약 3단계로 요약될 수 있어 상당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수입 채소의 경우는 네덜란드산 채소보다 유통 단계가 1단계 더 짧음



소비동향

- 데이터모니터에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으로 대표되는 유럽 주요 5개국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신선 채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선 채소 섭취가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을 한 결과, 네덜란드 소비자들 중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6%, '중요하다'는 48%로 나타남
- 네덜란드에서 신선 채소 섭취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은 남자(44%)보다는 여자(63%)의 비율이 높고, 연령대에서는 25-49세(55-59%),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큰 차이 없이 절반 정도의 소비자들이 신선 채소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함

수입동향

- 2010년 네덜란드의 버섯 수입규모는 1천 1백만 달러, 한화 115억 원, 2.3천

톤으로 중국산 버섯이 시장점유율 40~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국산, 독일산 순임

- 수입 단가를 살펴보면, 수입규모 1위인 중국산(3.95달러)과 2위 한국산(4.66달러), 3위 독일산(3.99달러)의 수입가격은 평균 가격인 12.13달러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탈리아산 버섯이 48달러로 가장 고가임

▣ 한국산 수출 확대 방안

- 버섯 관련 정보 웹사이트 운영
 - 한국산 버섯만을 홍보하는 대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버섯의 포장에 웹사이트 주소를 게재하여 유럽의 소비자들이 한국산 버섯에 대한 정보를 얻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특히 영양학적인 정보뿐 아니라 현지 소비자들이 버섯을 구입하여 다양한 현지 요리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요리법을 제공, 한국산 버섯에 대한 친숙함을 주는 것이 중요함
- 유통업체와 연계한 홍보전
 -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는 것을 감안할 때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시식을 통해 한국산 버섯을 맛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유럽 연합의 유기농 인증 획득
 - 네덜란드 시중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산 채소는 팽이 버섯으로, 패키지 자체에는 무농약 농산물 또는 유기농이라고 적혀져 있음
 - 그러나 유럽에서는 한국 유기농 인증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유럽 유기농 인증서 없이 유럽 지역, 특히 네덜란드로 수입을 시도할 경우에는 통관이 거부되고 있고 있음
 - 특히 네덜란드에서 판매 중인 표고버섯, 새송이 버섯, 팽이 버섯은 대부분 한국산 또는 중국산으로, 중국산 제품 중에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어 유기농 인증을 획득할 경우,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가장 큰 전략이 될 수 있음

차 례

영국 / 1



1. 시장개요	3
2. 생산동향	3
3. 유통동향	4
4. 소비동향	12
5. 수입동향	17
6. 통관 및 수입검사	20
7. 한국산 수출 확대 방안	23
8. 참고자료	27

네덜란드 / 29



1. 생산동향	31
2. 유통동향	34
3. 소비동향	37
4. 수입동향	40
5. 통관 및 수입검사	44
6. 한국산 수출 확대 방안	49
7. 참고자료	53
• 부록 : 농약 관련 규정	57

영 국



1. 시장개요	3
2. 생산동향	3
3. 유통동향	4
4. 소비동향	12
5. 수입동향	17
6. 통관 및 수입검사	20
7. 한국산 수출 확대 방안	23
8. 참고자료	27

1. 시장개요

■ 시장규모

- 2009년 영국의 버섯 시장규모는 5억 3천만 파운드로 2006년의 4억 6천만 파운드, 2008년의 5억 파운드에서 꾸준히 성장중임
- 2008~09년 동안 버섯의 시장규모는 6% 성장했으며, 2004~09년 기간에는 23%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채소 시장에서 버섯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임
- 따라서 버섯의 시장규모 자체는 샐러드 채소 및 녹색 채소보다는 작으나 버섯이라는 단일 품목의 시장규모로 본다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버섯 시장규모 〉

(단위 : 백만 파운드)

구 분	2004년	2006년	2008년	2009년	2008-09년 성장률	2004-09년 성장률
버섯	431	464	500	530	6.0%	23.0%

자료 : 민텔 2011

2. 생산동향

■ 생산량 및 생산면적

- 2009년 영국의 버섯 및 트러플 생산량은 1만 5천 톤으로 2006년의 2만 4천 톤, 2007년의 1만 9천 톤과 비교하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체 채소 생산량 중 버섯 및 트러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0.6%임
- 버섯은 2005년 이후 생산량 감소율이 30%가 넘어 상대적으로 다른 채소 들보다 감소폭이 컸으며, 특히 2008-09년 기간에는 유일하게 생산량이 감

소한 품목임

- 영국 시장 내 버섯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영국 내 생산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실제 Freshinfo에서 발간한 채소 시장 보고서인 'Vegetable Supplement'의 영국 버섯 시장 분석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 영국 내에 약 350개의 버섯 농장이 있었으나 현재는 20-3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영국의 버섯 생산량은 실제 수요량의 25-30%에 해당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부족한 부분은 아일랜드, 폴란드, 네덜란드 등에서 수입하고 있음
- FAO에서 영국의 버섯 및 트러플 생산면적 통계치는 제공하지 않음

〈 영국의 버섯 생산량 〉

(단위 : 톤,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8-09년 성장률	2005-09년 성장률
버섯 및 트러플	24,100	24,500	19,900	15,350	15,000	-2.3	-37.8

자료 : FAO 식량농업기구,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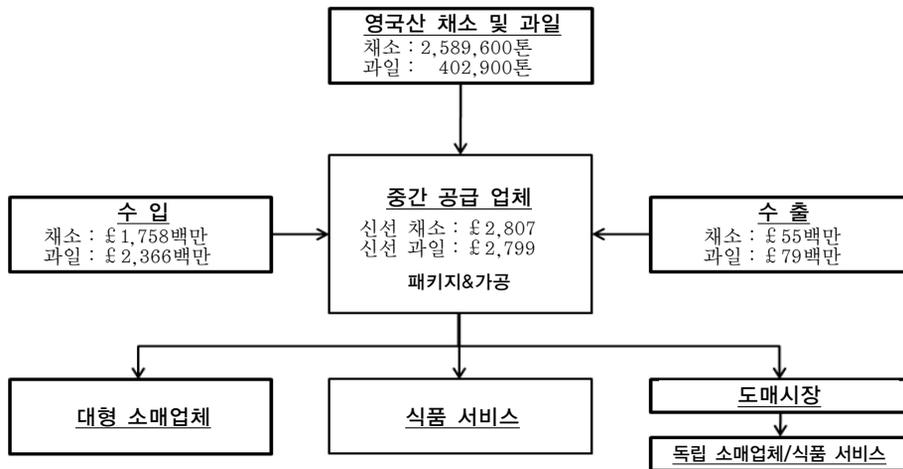
*주 : 세계 3대 식재료 중 하나인 트러플을 우리말로 옮기면 송로버섯으로, 트러플은 인공재배가 전혀 되지 않고 땅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땅 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림

3. 유통동향

▣ 유통구조

- 영국의 버섯 유통 구조는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약 4단계로 요약될 수 있어 상당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영국 버섯 유통구조도 〉



자료 : 유럽 식품 및 농업 파트너십 (EFPF), 2010

■ 유통 단계별 특징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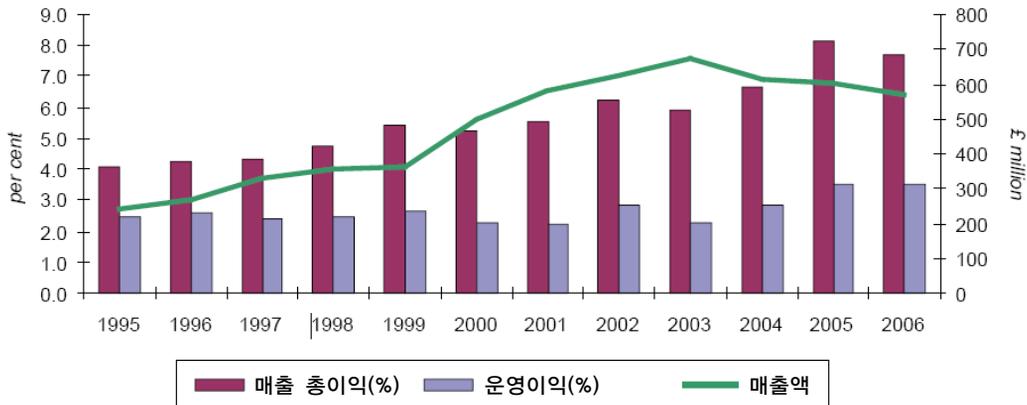
● 중간 공급업체(intermediaries)

- 중개상(agents)은 신선 채소 및 채소 업계에서 중간 공급업체의 역할을 하면서 종종 대형 소매업체와 함께 협동생산을 하기도 함
- 중간 공급업체는 특정 대형 유통업체를 위해 단지 영국산 신선 농산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수입산 채소 및 채소까지 구입하여 패키징해 소매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 중간 공급업체는 생산자를 대신하여 소매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고 그 대가로 6-9%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수수료율은 생산업자의 회원 등급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수수료는 패키징, 수송료, 마케팅 비용을 커버하지 않고 이 비용들은 중간업체가 대형 소매업체로부터 받는 총 대금에서 충당되고 있음
- 중간 공급업체들이 주요 대형 소매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물량의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중간 공급업체들의 평균 매출 총이익은 1995-2003년, 8년간 4%에서 6%

로 상승했는데, 이는 판매 및 유통비와 같은 직접 매출비용이 매출 상승에 따라서 증가한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기 때문임

- 또한 운영 이익은 같은 기간 동안에 2-3%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임
- 그러나 2004-2006년, 3년 동안에는 평균 매출 총이익과 운영 이익이 각각 7.7%, 3.5% 상승했는데 이는 위와 같은 회계 정책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 영국의 채소 중간 공급업체의 매출액, 매출총이익, 운영이익 〉



자료 : www.competition-commission.org.uk

● 대형 소매업체(retailer)

- 대형 소매업체는 영국 신선 채소 및 채소 매출의 75%에서 높게는 80% 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대형 소매업체들이 이와 같이 높은 매출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영국 전체적으로 다수의 소매 공급 체인, 즉 매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임
- 대형 소매업체들은 제품의 수입에서부터 가공 및 패키지, 공급까지 책임지고 맡을 수 있는 공급업체들과의 거래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영국의 채소 및 채소의 유통구조를 통합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영국의 채소류는 기후적 이유 때문에 종류 및 시기에 한계가 많아 대형 소매업체들은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어 영국산과 수입산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4개 주요 중간 공급 마케팅 중개상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주요 4대 업체가 영국산 채소 공급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80% 가량이며 사과와 감의 경우에는 86%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소비자들이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수입산 사과를 선호함에 따라 많은 대형 소매업체들이 다양한 사과품종을 판매하고 있는데,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의 다양한 품종이 판매되고 있음

● 식품 서비스(food service)

- 전통적으로 식품 서비스 분야는 소매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원산지 또는 품질에 제한을 받지 않아 보다 저렴한 수입 농산물을 선호함
-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산과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했는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
- 대형 식품 서비스 업체들로는 Pauleys/Brakes, 3663, Compass가 있으며 이 대형 식품 서비스 업체들도 대형 소매업체들과 유사하게 지역 유통센터를 통해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중간 공급업체들이 식품 서비스 업체보다는 대형 소매업체 납품에 집중하고 있어 공급 부족사태를 상대적으로 자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매시장(wholesale mark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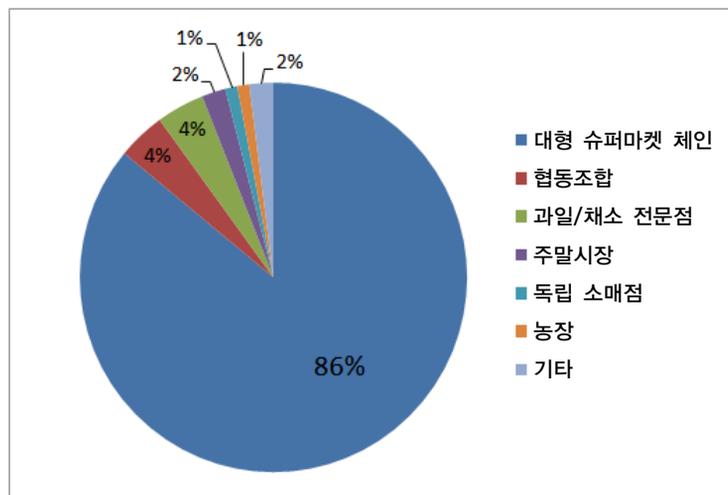
- 도매시장은 신선 농산물을 독립적 소매업체들과 레스토랑, 2차 도매상인, 소규모 공급업체들에게 납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도매시장은 전반적으로 수동적인 시스템으로 그 날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음
- 최근 도매시장에서 영국산 채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영국산에는 프리미엄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 시장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영국산 농산물의 공급은 도매시장의 큰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 영국의 주요 도매시장으로는 런던 인근에 위치한 New Covent Garden 과 New Spitalfields Market이 있음
- 이 도매시장은 런던 인근에 위치하고 있지만 거의 영국 전역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 소매업체 유형별 채소 유통 비중

- 키노트는 소매업체 유형을 세분화하여 대형 슈퍼마켓 체인, 협동조합, 과일 및 채소 전문점, 주말 시장, 독립 소매점, 농장, 기타로 구분함
-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형 슈퍼마켓 체인으로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86%의 점유율을 나타냄
- 이는 소비자들이 대부분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채소를 구입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다른 유형의 소매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미만으로 극히 적어 한국산 채소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중간 공급업체를 찾아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 소매업체 유형별 채소 유통 비중 〉



자료 : 키노트

■ 버섯 유통현황

- 버섯을 중심으로 영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 및 채소 전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버섯 종류 및 가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테스코와 아스다 등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는 ‘closed cup mushroom’, ‘chestnut mushroom’, ‘large flat mushroom’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제품은 250g 패키지 외에 그램별로도 판매하고 있음
- 이 버섯 품종들은 영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어서 체인 업체의 소형 매장에서는 위의 3종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이들 슈퍼마켓 체인 중 초대형 매장에서는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enoki(팽이버섯)’, ‘shitake(표고버섯)’, ‘king oyster(송이버섯)’ 등의 버섯도 판매 중임
- 이 품종들은 영국 소비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제품이어서 75g 또는 125g의 소포장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 제품들은 대중적인 버섯 제품과 비교하여 상당히 고가에 판매되고 있음
- 아일랜드산 closed cup mushroom의 경우 테스코에서 1kg에 3.38파운드에 판매되고 있는 반면 영국산 송이버섯(king oyster mushroom)은 동일한 1kg이 12.72파운드에 판매되고 있어 가격차이가 무려 약 3.8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런던에 위치한 보로마켓의 경우, ‘Tunip’이라는 업체에서 다양한 한국산 버섯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 곳에서 판매 중인 한국 버섯은 팽이버섯, 만가닥 버섯, 새송이버섯이 있으며 1kg에 24파운드에서 28파운드 선에 판매되고 있어 상당히 고가임

□ 영국에서 판매 중인 버섯 현황

구분	상품	비고
Closed Cup Mushroo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희고 단단함 - 갓 안쪽으로 주름은 없음 - 주요 원산지 : 영국, 아일랜드 - 판매처 : 테스코를 비롯한 모든 대형 슈퍼마켓 체인 - 가격 : 500g £1.69, 1kg £3.38(테스코 2011년 5월 기준)
Chestnut Mushroo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갓은 갈색이나 대는 흰색을 띠 - 갓 안쪽으로 주름은 없음 - 주요 원산지 : 영국, 아일랜드 - 판매처 : 테스코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 가격 : 250g £1, 1kg £4
Large flat mushroo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갓은 성인의 손바닥 크기이며 납작함 - 갓과 대는 흰색을 띠 - 갓 안쪽으로는 갈색 주름이 있음 - 주요 원산지 : 영국, 아일랜드 - 판매처 : 테스코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소형 매장의 경우 판매하지 않음 - 가격 : 250g £1, 1kg £4
Portobello Mushroo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갓의 지름은 약 6인치(15센티미터) 정도로 흰색을 띠며 납작함 - 갓 안쪽으로는 갈색 주름이 있음 - 대는 비교적 하얗고 짧음 - 주요 원산지 : 영국, 아일랜드 - 판매처 : 테스코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소형 매장의 경우 판매하지 않음 - 가격 : 250g £1.50, 1kg £6.00
King oyster mushroo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갓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대가 김 - 갓은 옅은 갈색 빛이 나며 대는 흰색임 - 주요 원산지 : 영국, 아일랜드 - 판매처 : 테스코를 비롯한 일부 대형 슈퍼마켓 체인. 아시아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에 위치한 초대형 매장에서만 판매 - 가격 : 125g £1.59, 1kg £12.72

Mixed oyster mushroo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원산지 : 영국, 아일랜드 - 판매처 : 테스코를 비롯한 일부 대형 슈퍼마켓 체인. 아시아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에 위치한 초대형 매장에서만 판매 - 가격 : 125g £ 1.17, 1kg £ 9.36
Shiitake mushroo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갓은 작은 구형으로 갈색을 띠고 대는 상대적으로 짧으며 열은 갈색을 띰 - 주요 원산지 : 중국 - 판매처 : 아스다를 비롯한 일부 대형 슈퍼마켓 체인. 아시아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에 위치한 초대형 매장에서만 판매 - 가격 : 75g £ 0.97, 1kg £ 12.93
Enoki mushroo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흰색이며 가늘고 긴 대 끝에 매우 작은 갓이 달려 있음 - 주요 원산지 : 영국, 중국, 한국 - 판매처 : 아스다를 비롯한 일부 대형 슈퍼마켓 체인. 아시아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에 위치한 초대형 매장에서만 판매. 또는 소수의 채소 전문점 및 아시아 전문 식료품점에서 판매 - 가격 : 75g £ 1.37, 1kg £ 18.26
Brown Shimej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은 갈색의 가늘고 긴 대 끝에 매우 작은 갈색의 갓이 달려 있음 - 주요 원산지 : 한국 - 판매처 : 극소수의 채소 전문점 및 아시아 전문 식료품점에서 판매 - 가격 : 150g £ 4.20, 1kg £ 28.00
White Shimej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은 갈색의 가늘고 긴 대 끝에 매우 작은 갈색의 갓이 달려 있음 - 주요 원산지 : 한국 - 판매처 : 극소수의 채소 전문점 및 아시아 전문 식료품점에서 판매 - 가격 : 150g £ 3.70, 1kg £ 24.66
Truff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땅속에서 나는 버섯으로, 마치 검은 감자의 모습을 하고 있음 - 주로 기름을 짜는데 사용하거나 일부 요리에 사용하고 있음 - 주요 원산지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 판매처 : 최고급 채소 전문점 및 인터넷에서만 판매 - 가격 : 150g £ 59.95

■ 주요 수입업체의 한국산 버섯에 대한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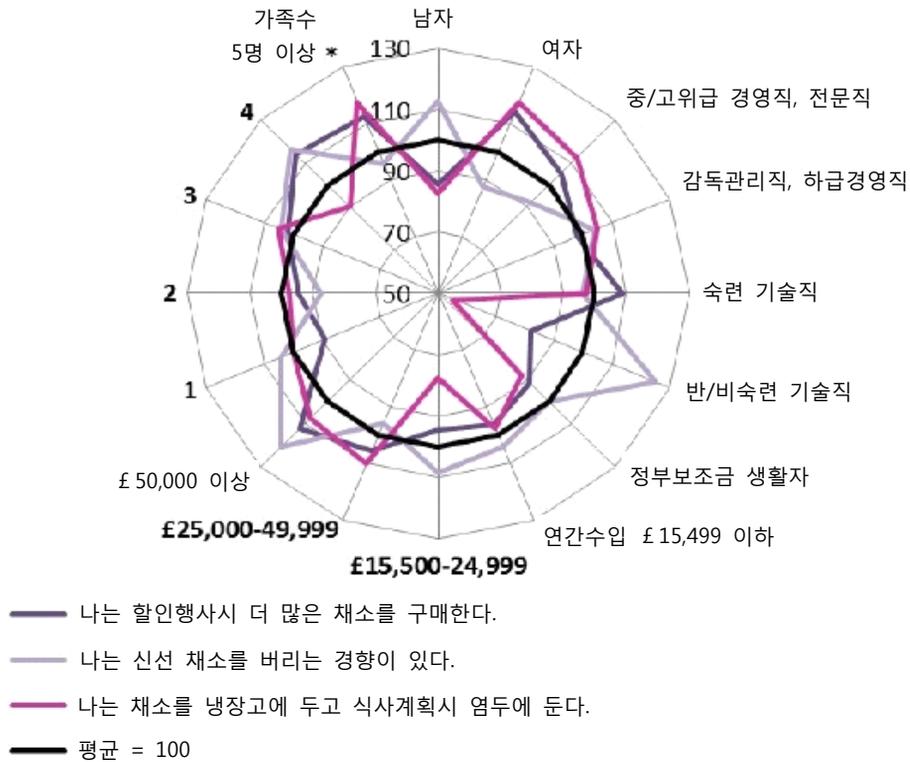
- 한국산 버섯 수입에 관심을 보였던 영국계 W사와 한국산 새송이 버섯을 수입한 적이 있는 중국계 S사와의 면담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런던 인근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뉴 코벤트 가든(New Covent Garden)에 위치한 영국계 W회사는 한국산 표고 버섯의 우수한 품질과 유기농으로 재배되었다는 점에 관심을 보였으나 유럽에서 인정하는 인증이 전혀 없어 제품을 수입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평가함
- 한편 중국계 S사의 경우, 한국산 새송이 버섯을 수입한 적이 있으나 오랜 기간 장거리로 수송됨에 따라 제품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수출업체로부터 환불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전함
- 이러한 이유로 한국산 버섯을 수입하는 것이 꺼려진다고 덧붙임

4. 소비동향

■ 주요 구매층

- 버섯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설문 조사 결과를 구할 수 없어 채소 전반에 걸쳐 진행된 소비자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소 소비 형태를 알아보고자 함
- 세계적인 조사기관인 민텔이 실시한 영국 국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소 구매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국의 채소 구매층을 살펴보고자 함
- 민텔은 채소 구매층을 성별, 가족인원수, 소득수준, 사회경제적 지위의 총 4개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함
- 성별을 바탕으로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채소를 많이 구매하고 섭취도 많이 하는 반면, 남자는 구매를 하더라도 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채소 구매층 분석 〉



자료 : 민텔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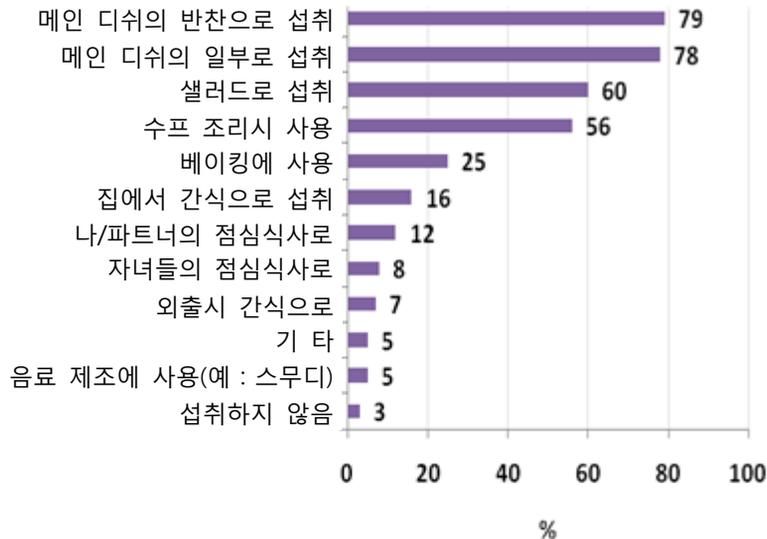
- 가족인원수에 있어서는 식구가 많을수록 더 많은 채소를 구매하고, 채소 가격에 민감하여 채소 할인행사가 채소 구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반면 가족 구성원수가 많을수록 채소를 버리는 경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채소 구매층을 분석해 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채소 구매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연간 소득 25,000파운드에서 49,999파운드의 중산층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채소를 식사계획 때 염두에 두고 섭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산층과 고소득계층에서는 이러한 채소 구매 및 섭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사회경제적 지위를 기준으로 보면, 반/비숙련 기술직에서는 신선채소를 구입했다라도 버리게 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반면 중/고위급 경영직, 전문직에서는 그 비율이 평균보다 낮음
- 또한 반/비숙련 기술직에서는 채소를 식사계획 시 염두에 둔다는 비율이 평균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고위급 경영직, 전문직에서는 할인행사 시 더 많은 채소를 산다와 채소를 식사계획 시 염두에 둔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성별, 가족 인원수, 소득수준, 사회경제적 지위를 바탕으로 채소 주 구매층을 분석해 봤을 때, 주로 자녀가 있는 4인 이상의 가족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고위급 경영직 또는 전문직에서 일하고 있는 중산층이 가장 많이 채소를 구매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대형 슈퍼마켓 체인 또는 유통채널을 선정할 때 이와 같은 채소 주요 구매층이 자주 이용하는 곳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소비 형태

- 민텔에서 조사한 영국 소비자들의 채소 소비 형태를 보면, 메인 디쉬의 반찬 또는 메인 디쉬의 일부로 채소를 섭취한다는 응답이 각각 79%와 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소가 들어가 있는 영국 전통 요리들을 보면, 대부분 메인 디쉬의 반찬 또는 일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음
- 또한 메인 디쉬의 반찬 또는 메인 디쉬의 일부로 제공되는 채소의 경우, 조리되지 않은 신선한 상태로 제공되기보다는 굽거나 튀기거나 찢 채소가 많아 영국 소비자들의 식생활 특징을 알 수 있음

〈 채소 소비형태 〉



자료 : 민텔 2011

- 또한 설문조사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샐러드로 채소를 섭취하거나(60%) 수프 조리시에 채소를 사용한다(56%)고 응답함
- 간식 또는 음료 제조에 사용한다는 비율은 각각 16%와 5%에 불과하며 섭취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3%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샐러드로 채소를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채소를 조리하여 섭취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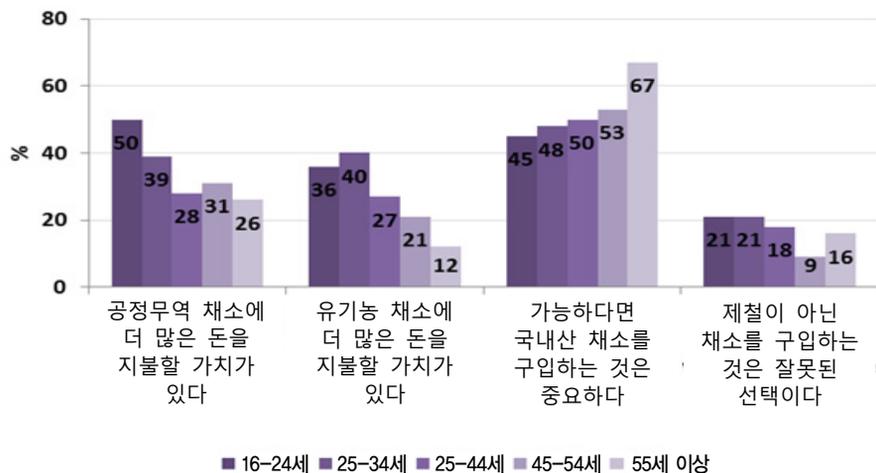
■ 채소에 대한 태도

- 민텔이 영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소에 대한 가치관 조사 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이 공정무역(fair trade) 채소, 유기농 채소, 자국산 채소, 제철 채소 등에 어떠한 가치를 매기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 윤리적으로 공정무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캠페인이 최근 몇 년간 영국에서 이슈가 되면서 16-24세의 젊은 연령층 사이에서는 50%에 이르는 응답

자들이 공정무역 채소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대답한 반면, 5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약 1/4만이 그렇다고 응답함

- 유기농 채소에 대해서도 비교적 사회 이슈 또는 유행에 민감한 35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유기농 채소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35세 이상에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30% 이하로 저조함
- 2010년 유기농 채소가 영양학적으로 일반 채소와 다르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유기농 채소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낮게 나온 것으로 추정됨
- 자국산 채소에 대한 선호도는 전 연령대에서 응답률이 최소 45% 이상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자국산 채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노년층의 응답률은 67%에 이르는 등 매우 높게 나타남
- 이와 같은 영국의 자국산 채소 선호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도 나타나 자국산 채소 패키지에 국기를 그려 넣는 등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하고 있음
- 반면 채소의 제철시기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 걸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채소에 대한 가치관 조사 〉



자료 : 민텔 Mintel 2011

- '제철이 아닌 채소를 구입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는 문장에 최대 21%의 소비자들만 동의했고 45세-54세의 중년층에서는 9%의 응답자만이 동의함
- 위의 채소에 대한 영국 소비자들의 가치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영국 소비자들의 경우, 채소가 유기농법으로 생산되었는지 또는 공정무역으로 수입된 것인지보다는 자국산인지의 여부가 더 중요함

5. 수입동향

■ 수입규모

- 2010년 영국이 수입한 버섯 중 주름버섯속(Genus Agaricus) 버섯류의 경우, 수입액은 2억 2천만 달러, 수입량은 7만 9천 톤임
- 2010년 영국이 수입한 버섯 중 기타 버섯류의 경우, 수입액은 5천 6백만 달러, 수입량은 1만 9천 톤임

〈 영국의 버섯 수입 현황 〉

(단위 : 천 달러, 톤, %)

HS 코드	품목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09-10년 성장률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070951	Genus Agaricus 버섯류	276,300	99,443	220,278	77,825	221,384	79,247	0.5	1.8
070959	기타 버섯류	32,705	10,054	45,491	16,011	56,303	19,041	23.8	18.9

자료 : GTA

■ 국가별 수입동향

- 한국 버섯이 주로 HS 코드 070959로 영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이 코드로 영국의 원산지별 수입규모를 살펴보면, 네덜란드에서 수입되는 버섯의 규모가 약 3천만 달러, 9.4톤으로 전체 수입규모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네덜란드에 이어 폴란드와 아일랜드로부터 수입되는 버섯의 규모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 3개국에서 수입되는 버섯의 물량은 2008년 이후 두세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경쟁이 치열함을 알 수 있음
- 한국산 버섯의 수입규모도 세 자릿수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한국산 버섯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된다면 수출 확대가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음

〈 버섯 원산지별 수입동향 〉

(단위 : 천 달러, 톤, %)

국가	2008년		2009년		2010년		2009-10년 성장률		2008-10년 성장률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전 체	32,705	10,054	45,491	16,011	56,303	19,041	23.8	18.9	72.2	89.4
네덜란드	16,287	4,821	29,807	9,488	29,351	9,441	-1.5	-0.5	80.2	95.8
폴란드	9,026	3,572	8,458	4,336	16,346	6,324	93.3	45.8	81.1	77.0
아일랜드	1,909	619	3,154	1,485	4,473	1,780	41.8	19.9	134.3	187.6
벨기에	725	256	300	139	1,959	715	553.0	414.4	170.2	179.3
프랑스	1,414	137	1,329	126	1,267	90	-4.7	-28.6	-10.4	-34.3
중 국	1,301	246	998	174	1,235	289	23.7	66.1	-5.1	17.5
이탈리아	714	28	503	16	450	20	-10.5	25.0	-37.0	-28.6
스페인	525	229	220	33	313	60	42.3	81.8	-40.4	-73.8
베트남	99	90	220	171	313	203	42.3	18.7	216.2	125.6
독 일	104	16	44	11	172	61	290.9	454.5	65.4	281.3
터 키	159	6	228	9	104	3	-54.4	-66.7	-34.6	-50.0
미 국	241	11	74	4	82	4	10.8	0.0	-66.0	-63.6
불가리아	53	2	47	2	81	27	72.3	1,250.0	52.8	1,250.0
태 국	11	2	24	3	64	8	166.7	166.7	481.8	300.0
한 국	12	2	9	1	29	6	222.2	500.0	141.7	200.0
짐바브웨	55	13	51	13	27	5	-47.1	-61.5	-50.9	-61.5
남아프리카 공화국	38	2	17	1	26	1	52.9	0.0	-31.6	-50.0
브라질	0	0	0	0	5	3	0.0	0.0	0.0	0.0
세르비아	0	0	0	0	3	0	0.0	0.0	0.0	0.0
홍 콩	1	0	1	0	3	0	200.0	0.0	200.0	0.0

자료 : GTA

■ 수입가격 비교

- 버섯 HS 코드 070959를 중심으로 원산지별 수입가격을 살펴보면, 수입가격이 가장 낮은 독일 1.54달러와 가장 고가인 미국산 34.67달러를 비교할 경우 가격 차이가 약 23배에 달함
- 2010년 한국산 버섯의 영국 수입 가격은 8.00달러로, 전체 평균인 8.42달러에 밀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유사한 중국산의 수입가격은 14.08달러로 한국산보다 고가로 나타나 한국 버섯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버섯 원산지별 수입가격 동향〉

(단위 : 달러)

국가	2008년	2009년	2010년
네덜란드	3.25	2.84	2.96
폴란드	3.38	3.14	3.11
아일랜드	2.53	1.95	2.58
벨기에	3.08	2.12	2.51
프랑스	2.83	2.16	2.74
중 국	10.32	10.55	14.08
이탈리아	5.29	5.74	4.27
스페인	25.50	31.44	22.50
베트남	2.29	6.67	5.22
독 일	1.10	1.29	1.54
터 키	6.50	4.00	2.82
미 국	26.50	25.33	34.67
불가리아	21.91	18.50	20.50
태 국	26.50	23.50	3.00
한 국	5.50	8.00	8.00
짐바브웨	6.00	9.00	4.83
남아프리카 공화국	4.23	3.92	5.40
브라질	19.00	17.00	26.00
세르비아	0.00	0.00	1.67
홍 콩	0.00	0.00	0.00
평 균	8.79	8.86	8.42

자료 : GTA

6. 통관 및 수입검사

통관 거부 사례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유럽의 채소 통관 거부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영국으로의 채소 수입과정에서 중요한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고자 함
- 3년간 유럽 긴급 경고 시스템 RASFF에 통관이 거부된 것으로 등록된 채소 제품 사례는 총 222건이며, 살충제 또는 살균제와 같은 농약 검출로 인한 통관 거부 사례가 12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는 독소 및 중금속 검출(27건), 위생 및 패키지 상태 불량(20건), 곰팡이 발생(17건)의 이유로 빈번하게 통관 거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8-10년 채소 통관 거부 유형 및 건수 〉

통관 거부 유형	적발건수	비 고
독소 및 중금속 검출	27	Aflatoxin(3), Lead(5), Salmonella(4), Sulphite(10)
농약 검출	121	Oxamyl(11), Omethoate(16), Endosulfan(2), Iprodione(2), Dimethoate(15), Prophenophos(3), Chlorpyrifos(6), Fenpropathrin(3), Methamidophos(2), Lindane(1), Cypermethrin(3), Pirimiphos-methyl(2), Carbendazim(9), Carbofuran(4), Malathion(2), Indoxacarb(7), Ethion(4), Dicrrotophos(5), Metalaxyl(3), Cabaryl(1), Methomyl(17), Profenofos(1), Triazophos(2)
위생 및 패키지 상태 불량	20	-
곰팡이 발생	17	-
관능학적 특성변형	10	-
식품첨가물 과다검출	7	-
곤충 발견	13	-
부 패	7	-
합 계	222	-

자료 : 유럽 연합 식품 및 사료 긴급 경보 시스템 RASFF 웹사이트

☐ 독소 및 중금속 관련 규정

- 유럽연합은 EC 1881/2006을 통해 독성, 중독성을 지니거나 체내에 축적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독소 및 중금속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최대 허용량을 정해 놓고 있음

〈 독소 및 중금속 최대 허용량 〉

코드	구분	최대허용량(mg NO3/kg)
3.2	카드뮴	
3.2.15	잎 채소, 신선 허브, 줄기 채소, 버섯류, 뿌리 채소를 제외한 채소 및 과일	0.050
3.2.16	줄기 채소, 뿌리 채소 및 감자	0.10
3.2.17	잎 채소, 신선 허브, 셀러리 및 일부 버섯류(일반 버섯, 느타리 버섯, 표고버섯)	0.20
3.2.18	버섯류(3.2.17 버섯류를 제외한 버섯)	1.0

자료 : http://ec.europa.eu/food/food/chemicalsafety/contaminants/index_en.htm

☐ FTA 체결 전후 관세 비교

- 버섯의 관세는 종류에 따라 낮게는 3.2에서 높게는 12.8에 달했으나 FTA가 체결됨에 따라 관세가 즉시 철폐됨
- 이에 따라 한국산 버섯의 수입가격은 다소 낮아져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앞설 것으로 판단됨

〈 버섯 종류별 기본 관세 및 관세 철폐시기 〉

CN코드	품 목	기본 관세	관세철폐시기
	- 버섯 및 트러플		
0709 51 00	-- 아가리쿠스	12.8	즉시 철폐
070959	-- 기타 버섯		
07095910	--- Chanterelles	3.2	즉시 철폐
0709 59 30	--- Flap Mushrooms	5.6	즉시 철폐
0709 59 50	--- 트러플	6.4	즉시 철폐
0709 59 90	--- 기 타	6.4	즉시 철폐

자료 : 유럽연합

라벨링

- 일반 제품의 라벨 의무표기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제품 이름
 - 성분 및 성분 함량 또는 성분 카테고리 : 함량이 높은 순으로 표기, 성분 카테고리 및 특정 성분 순으로 표기
 - 알레르기 유발 성분
 -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 제조회사 이름 및 주소 또는 유럽 연합 내 수입/판매업자
 - 순 중량
 - 영양성분
 - 원산지
- 영국의 일반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판매 중인 채소의 라벨링은 대부분 비닐에 스티커 부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 제품만 뒷면까지 라벨링이 되어 있음

〈 영국의 버섯 라벨링 예시 〉



⑤ 제품명		② 영양성분 : 100g 당 칼로리, 설탕, 지방, 포화지방산, 소금 함유량 및 1일 권장량 % 표기
	① 원산지	③ 중량
	④ 유통기한	

7. 한국산 수출 확대 방안

- 한국산 채소들은 버섯을 제외하고는 영국에 알려져 있거나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
- 또한 채소의 경우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특정 제품에 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을 넓혀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유기농 인증을 통한 제품의 품질 인증

- 영국 시중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산 채소는 팽이 버섯으로, 패키지 자체에는 무농약 농산물 또는 유기농이라고 적혀 있음
- 그러나 유럽에서는 한국의 유기농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유럽의 유기농 인증서 없이 유럽 지역, 특히 영국으로 수입을 시도할 경우에는 통관이 거부되고 있고 있음
- 따라서 유럽의 유기농 인증을 획득해 까다로운 영국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제품으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음
- 특히 영국에서 판매 중인 표고버섯, 새송이 버섯, 팽이 버섯은 대부분 한국산 또는 중국산이며, 중국산 제품 중에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어 유기농 인증을 획득할 경우,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 할 수 있음

■ 라벨링을 통한 제품에 대한 정보 전달

- 한국산 버섯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버섯과는 달라 소비자들이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에 활용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매율이 낮음
- 따라서 팽이버섯, 새송이 버섯 등의 경우, 제품 포장 뒷면에 어떻게 영국 소비자들의 기존 식단에 응용을 할 수 있는지 레시피를 기재하여 제품 구매 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Asda에서 판매 중인 팽이 버섯 라벨링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뒷면에 손질법과 팽이버섯을 영국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파마 햄으로 감싸 굽는 간단한 레시피를 보여 줌으로써 구매를 촉진함

〈 팽이버섯 활용법을 표기한 패키지 예시 〉



▣ 한식당을 중심으로 한 공동구매 추진

- 태국의 경우, 태국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레몬 그라스 등의 채소가 수입되다가 이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이 채소를 구입하고자 함으로써 수요가 발생되어 현재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도 주요 태국 채소들을 판매하기 시작함
- 따라서 런던을 중심으로 한 한식당들이 공동구매를 하고 한국의 채소만을 주성분으로 한 요리를 제공함으로써 영국 현지 소비자들이 한국 채소를 경험하게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국 시장에서 한국산 채소에 대한 수요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음
- 또한 한식당의 한국 채소 소비량은 일반 개인의 소비량보다 많아 수출을 늘리는 데에도 효과적임

▣ 박람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 수입 및 공급업체를 발굴할 수 있는 영국의 식음료 관련 박람회로는 작년 3월에 Birmingham NEC에서 개최되는 Food & Drink Expo와 올해 3월에 London ExCel에서 개최되는 International Food Exhibition이 있음

구 분	Food and Drink Expo	International Food Exhibition
개최시기	작수해 3월 (2012년 3월 25-27일)	홀수해 3월 (2013년 3월 17-20일)
장 소	Birmingham NEC	London ExCel
웹사이트	www.foodanddrinkexpo.co.uk	www.ife.co.uk

■ 산업잡지를 통한 홍보

-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수입 또는 공급, 생산업체들은 관련 산업잡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의 우수성 등을 홍보하고 있음
- 유럽의 기존 채소와 다른 특징을 띠고 있는 채소들의 경우는 이러한 잡지에 광고를 함으로써 관심있는 수입업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또한 이러한 잡지들을 통해 수입업체들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접할 수 있도록 제품의 특징 및 활용방법(조리예)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신선 채소를 전문으로 하는 잡지로는 Freshinfo에서 발행하는 FPJ가 있음 (www.freshinfo.com)

< FPJ에 게재된 채소 광고와 기획기사 예시 >

<p>Fresh vegetables from Kenya</p> <p>All year round production Experienced farmers who understand the demands of the EU market Good freight network to most of Europe Variety of products from one destination to meet importers demands Exceptional quality which European consumers enjoy Good back-stopping from the Kenya High Commission in London Government and sector institutions both in Kenya and EU</p> <p>The Kenya High Commission www.kenyahighcommission.net For more information email: kenyaexport@kenyahighcommission.net, commercial@kenyahighcommission.net</p>	<p>World vegetable production - different countries, but same challenges</p> <p>World vegetable production has been in the news recently, with the United Kingdom's decision to increase its vegetable production and the EU's decision to increase its vegetable production. The article discusses the challenges of vegetable production in four different countries: Kenya, China, India, and the UK.</p> <p>Kenya Kenya is a major vegetable producer in the world. The country has a long history of vegetable production and is known for its high quality produce. The Kenya High Commission in London is responsible for promoting Kenyan vegetables in the UK market.</p> <p>China China is the world's largest vegetable producer. The country has a long history of vegetable production and is known for its high quality produce. The Chinese government is investing heavily in vegetable production and is looking to increase its export to other countries.</p> <p>India India is a major vegetable producer in the world. The country has a long history of vegetable production and is known for its high quality produce. The Indian government is investing heavily in vegetable production and is looking to increase its export to other countries.</p> <p>UK The UK is a major vegetable producer in the world. The country has a long history of vegetable production and is known for its high quality produce. The UK government is investing heavily in vegetable production and is looking to increase its export to other countries.</p>
<p>케냐의 채소 광고</p>	<p>기획 기사</p>

- 또한 이러한 잡지사들의 채소 관련 기자들을 초청하여 한국산 채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기농법으로 생산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게 함으로써 한국 채소에 대한 내용이 기획 기사로 잡지뿐 아니라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바이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버섯 패키지의 개선

- 버섯 제품이 약 2달에 걸쳐 수송되는 동안 곰팡이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수출하고도 환불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 따라서 버섯 패키지의 개선을 통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곰팡이의 발생을 억제하고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8. 참고자료

 관련 협회 및 정부기관

<p>Defra(영국 농식품부에 해당) Nobel House 17 Smith Square London SW1P 3JR Tel : +44(0)207 238 6951 www.defra.gov.uk defra.helpline@defra.gsi.gov.uk</p>	<p>Food Standard Agency(식품 표준청) Aviation House 125 Kingsway London WC2B 6NH Tel : +44(0)20 7276 8000 www.food.gov.uk helpline@foodstandards.gsi.gov.uk</p>
<p>Freshfel Europe (유럽 신선 농산물 협회) Avenue De Broqueville 272 Bte 4 1200 Brussels, Belgium Tel : 003202 777 1580 www.freshfel.org info@freshfel.org</p>	<p>Mushroom Bureau 27 King Edward Walk London, SE1 7PR Tel : ++44(0)207 261 1086 Fax : ++44(0)207 401 3588 www.mushroom-uk.com</p>

 주요 제품 수입/유통회사

<p>Connaught International Trading Co. 52 Hurlingham Road Fulham, London, SW6 3RQ Tel : +44(0)207 731 6332 Fax : +44(0)207 731 6334 Email : uk@btinternet.com</p>	<p>Liveseybros Co. Lower Fields Farm Normanton Road, Packington Leceistershire, LE65 1XA Tel : +44(0)1530 415 862 Fax : +44(0)1530 560 065 Email:tlivesey@liveseybros.co.uk ddear@liveseybros.co.uk</p>
<p>Wild Harvest Ltd Units B61-64 New Covent Garden Market London, SW8 5HH Tel : +44 (0)20 7498 5397 Fax : +44(0)20 7498 5419 www.wildharvestuk.com Email : enquiries@wildharvestuk.com</p>	

네덜란드



1. 생산동향	31
2. 유통동향	34
3. 소비동향	37
4. 수입동향	40
5. 통관 및 수입검사	44
6. 한국산 수출 확대 방안	49
7. 참고자료	53

1. 생산동향

■ 생산규모

- 2008년 네덜란드의 버섯 생산규모는 약 4억 달러, 한화 약 4,263억 원, 25만 5천 톤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이며, 유럽에서는 최대 버섯 생산국임

〈 세계 버섯 생산규모('08년) 〉

(단위 : 천 달러,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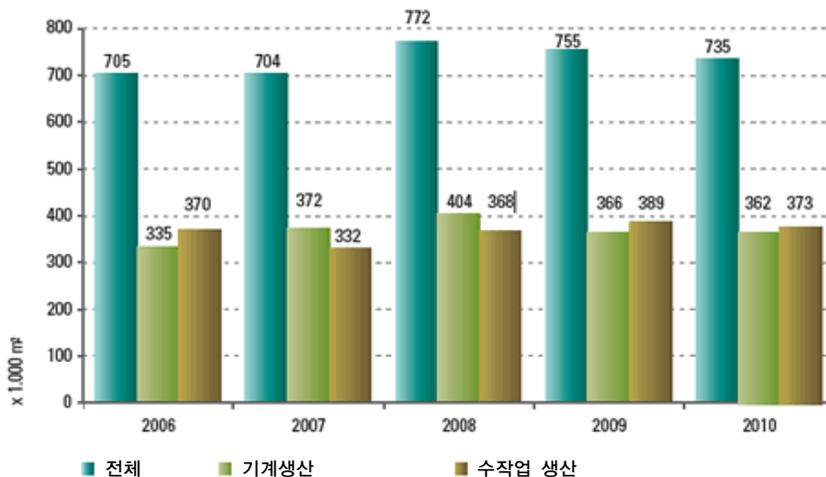
순위	국가명	생산액	생산량
1	중 국	2,665,574	4,710,579
2	미 국	602,589	363,560
3	네덜란드	397,792	255,000
4	폴란드	298,344	164,025
5	프랑스	249,366	150,450
6	스페인	218,742	133,548
7	이탈리아	165,747	100,000
8	캐나다	144,110	86,946
9	아일랜드	124,310	53,884
10	일 본	111,050	67,500
11	인도네시아	101,684	61,349
12	독 일	82,873	50,000
13	호 주	78,070	47,102
14	영 국	72,517	43,752
15	벨기에	66,298	40,000
16	인 도	61,326	38,577
17	한 국	47,007	28,361
18	이 란	46,409	23,405
19	헝가리	39,623	23,906
20	베트남	29,834	19,514

자료 : FAO 식량농업기구 2011

■ 생산면적

- 2006-10년 네덜란드의 버섯 생산면적을 조사한 결과, 2006년 70만 5천㎡에서 2008년 77만 2천㎡로 약 10%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면적이 감소하여 2010년에는 2008년보다 약 5%가 감소한 73만 5천㎡로 집계됨
- 또한 네덜란드의 버섯 생산면적은 생산방식에 따라 버섯을 기계로 생산하는 면적과 수작업으로 생산하는 면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계 생산면적은 2006-08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 최대치인 40만 4천㎡에 달하여 수작업 생산방식 면적을 앞질렀으나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며 2010년에는 36만㎡로 감소하여 생산방식에 따른 면적 비율에서도 수작업 생산방식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낮아짐
- 수작업 생산방식은 2007년 33만㎡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 증가하여 2009년에 약 39만㎡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다시 감소세를 보임
- 두 가지 생산방식에 따른 생산면적은 매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각각 면적비율이 48-52%로 거의 1대 1 비율을 보여 면적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음

〈 네덜란드의 버섯 생산면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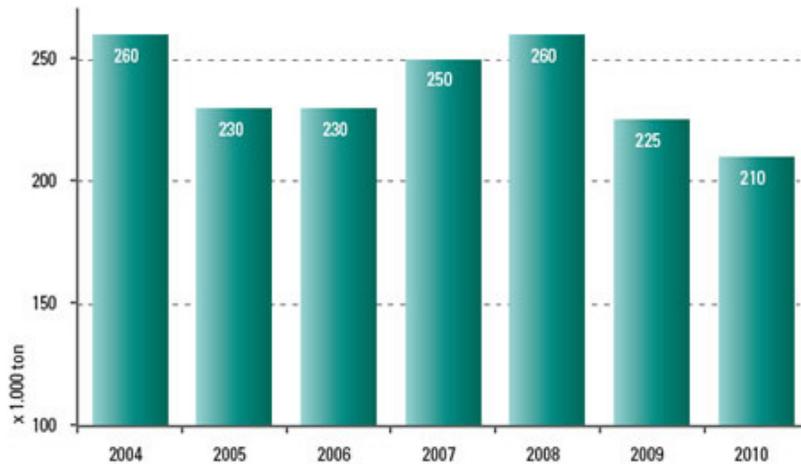


자료 : ABN-AMRO, 2011

■ 생산량

- 2010년 네덜란드의 버섯 생산량은 21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6.7% 감소함

〈 네덜란드의 버섯 생산량 〉



자료 : ABN-AMRO,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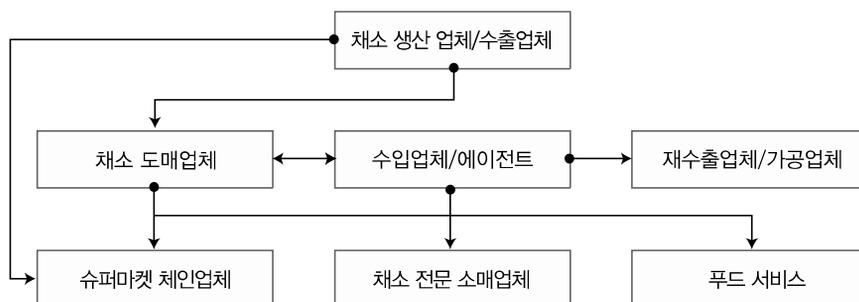
- 2004년 이후의 생산량 동향을 보면, 2004년에는 26만 톤 규모의 버섯이 생산되었으나 다음 해인 2005년과 2006년에는 23만 톤으로 10% 가량 감소함
-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2008년에는 2004년 생산량을 회복하며 최대치인 26만 톤을 기록함
- 그러나 2009-10년에는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2010년에는 최근 7년간의 최소치인 21만 톤의 버섯이 생산됨
- 최근 7년간의 최저치와 최고치를 비교하면 거의 20%가 감소됨
- 또한 생산량의 감소율이 재배면적의 감소율보다 큰 것으로 조사됨

2. 유통동향

▣ 채소류 유통구조

- 네덜란드의 신선 채소 및 채소의 유통 구조는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약 3단계로 요약될 수 있어 상당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수입 채소의 경우는 네덜란드산 채소보다 1단계가 더 짧은 것으로 조사됨

〈 네덜란드의 신선 채소 유통구조 〉



자료 : CBI.eu, 2011

▣ 유통 업체별 특징

- 에이전트
 - 한국 수출업체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컨테이너를 채우는데 필요한 제품들을 모으는 한편, 네덜란드 도매업체들을 위한 물량을 확보함
 - 일부 에이전트들은 판매 가격에 대한 커미션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최대 10%임
- 수입업체
 - 수입업체들은 한국 내 생산업체 또는 수출업체들로부터 직접 제품을 받음
 - 수입업체에서 통관 및 검역 등의 절차를 처리하게 되며 일부 경우에는 소매업체들을 위한 최종 패키징까지 맡기도 함

- 수입업체들은 도매업체, 대형 슈퍼마켓 체인과 채소전문 소매업체 등에 공급을 함
- 일반적으로 수입업체의 마진은 5-10%임
- 수입업체들은 네덜란드 시장에 대한 지식이 있고 도매업체 또는 현지 유통업체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유통 채널이라고 할 수 있음

● 도매업체

- 도매업체들은 채소를 수입업체, 생산업체, 경매를 통해 구입함
- 이렇게 구입된 채소들은 채소 전문 소매점, 푸드 서비스업체, 슈퍼마켓으로 공급됨
- 최근에는 직접 수입업체들로부터 채소를 공급받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 및 대형 채소 전문 소매점들이 증가하면서 도매업체들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소매업체

- 소매업체들의 가격 지향 특성에 따라 공급량과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에 차이가 있음
- 소매업체의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여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 소매업체 유형별 제품 요구사항 〉

가격수준	디스카운트	프리미엄	프리미엄
공급량 (상대적)	대량	대량	소량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 공급의 신뢰성 - 연중 공급가능 기간 - 추적 가능성 - 제품의 균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 - 특이성, 유기농, 공정 무역 제품 여부 - 성숙도 - 추적 가능성 - 제품 프로모션 - 제품의 균등성 - 공급의 신뢰성 - 지속가능한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 - 성숙도 - 독특한 맛 - 특이성, 유기농, 공정 무역 제품 여부 - 추적 가능성 - 공급의 신뢰성 - 독특한 마케팅 컨셉

자료 : CBI.eu, 2011

☐ 유통제품 및 가격

-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대형 슈퍼마켓 체인업체인 Albert Heijn을 중심으로 버섯의 가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 네덜란드 현지 슈퍼마켓에서 판매중인 버섯 현황 〉

품종	상품	중량	가격
Gesneden Champignons		200g	€1.70
Portobello duo (Shiitake)		100g	€1.99
Champignons		250g	€0.89

<p>Puur & eerlijk Champignons</p>		<p>250g</p>	<p>€1.69</p>
<p>Paddestoelen Melange</p>		<p>200g</p>	<p>€2.99</p>

- 양송이 종류의 버섯이 가장 대중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산 표고버섯보다는 머리 부분이 상당히 큰 표고버섯이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3. 소비동향

▣ 신선 채소 섭취에 대한 태도

- 데이터모니터에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으로 대표되는 유럽 주요 5개국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신선 채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선 채소 섭취가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을 한 결과, 네덜란드 소비자들 중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6%, '중요하다'는 48%로 나타남
- 이 수치는 독일과 영국 소비자들의 50%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지만, '중요하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

을 비교하면 네덜란드는 94% 독일과 영국은 91%로 나타나 네덜란드 소비자들이 신선 채소 섭취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유럽 주요 5개국의 신선 채소 섭취에 대한 태도 비교 〉

(단위 : %)

구 분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 국
매우 중요함	48	56	54	46	51
중요함	45	35	39	48	40

자료 : 데이터모니터 2008

■ 신선 채소 선호 계층 분석

- 신선 채소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분석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음
- 네덜란드에서 신선 채소 섭취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은 남자(44%)보다는 여자(63%)의 비율이 높고, 연령대에서는 25-49세(55-59%),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큰 차이 없이 절반 정도의 소비자들이 신선 채소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함
- 반면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신선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으며 독일의 6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는 신선 채소 섭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 비율이 전체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됨

〈 유럽 주요 5개국의 신선 채소 선호 계층 분석 〉

(단위 : %)

구 분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 국
성 별					
여 자	65	54	54	63	57
남 자	47	39	43	44	44
연 령					
18-24세	49	37	44	48	52
25-34세	58	45	42	55	56
35-49세	52	50	44	59	41
50-64세	30	51	59	51	51
65세 이상	76	27	43	50	53
소득수준					
\$0 - \$36,995	58	45	45	55	45
\$37,000 - \$55,995	53	45	46	53	52
\$56,000 - \$93,995	60	47	48	51	53
\$94,000 - \$139,995	61	46	52	55	56
\$140,000 이상	34	34	73	55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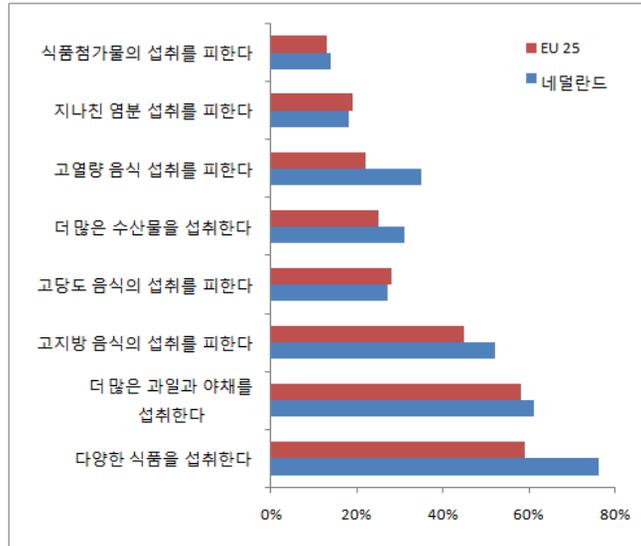
자료 : 데이터모니터 2008

■ 건강을 위한 식이습관

- 네덜란드와 유럽 연합 25개국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한 식이습관 유형을 비교해 보면, 네덜란드와 유럽 연합 25개국 소비자 모두 건강을 위해 다양한 음식,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반면 고지방 음식의 섭취를 피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 중 다양한 음식을 섭취한다는 비율은 두 지역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네덜란드 소비자는 80%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인 반면, 유럽 연합 25개국에서는 6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을 보임
- 건강을 위해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고 특히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늘린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 품목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네덜란드 소비자들은 건강을 위해 고열량 음식의 섭취를 피한다는 유형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유럽 연합 25개국에서는 고당도 또는 고염분의 음식 섭취를 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식이습관 유형 중 건강을 위해 식품첨가물의 섭취를 피한다는 비율은 네덜란드와 타 유럽 연합 국가들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남

〈 네덜란드 및 EU25개국의 건강을 위한 식이습관 비교 〉



자료 : 데이터모니터 2008

4. 수입동향

■ 버섯 수입규모

- HS 코드 070959를 중심으로 네덜란드의 버섯 수입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 네덜란드는 1천 1백만 달러, 한화 115억 원, 2.3천 톤 규모로 수입함
- 우선 수입액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동향을 보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08-09년에는 20% 이상 감소하였으며 2009-10년에는 -4.0%를 기록함
- 수입물량도 2008-09년에는 20% 이상 감소하였으나 2009-10년에는 수입량이 6.4% 증가함
- 네덜란드에서 버섯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10개 원산지국을 살펴보면, 중국산 버섯이 시장점유율 40-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국산, 독일산 순으로 파악됨

- 수입규모 1위인 중국산 버섯은 2008년 이후 최근 3년간 꾸준히 수입액과 수입량이 증가하여 3년간 수입액은 32%, 수입량은 4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네덜란드의 버섯 수입 상위 10개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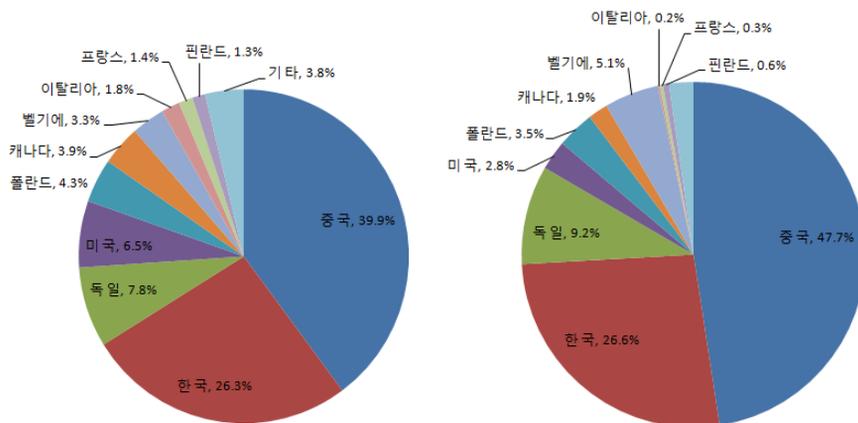
(단위 : 천 달러, 톤, %)

국가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09-10년		2008-10년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전 체	14,045	2,723	11,111	2,125	10,670	2,260	-4.0	6.4	-24.0	-17.0
중 국	3,221	772	3,623	855	4,252	1,077	17.4	26.0	32.0	39.5
한 국	3,618	691	2,956	618	2,803	601	-5.2	-2.8	-22.5	-13.0
독 일	852	216	1,113	268	833	209	-25.2	-22.0	-2.2	-3.2
미 국	504	37	563	35	689	63	22.4	80.0	36.7	70.3
폴란드	1,716	556	326	53	455	80	39.6	50.9	-73.5	-85.6
캐나다	635	59	468	39	415	42	-11.3	7.7	-34.6	-28.8
벨기에	460	126	334	108	347	116	3.9	7.4	-24.6	-7.9
이탈리아	614	25	561	47	192	4	-65.8	-91.5	-68.7	-84.0
프랑스	872	64	326	16	146	7	-55.2	-56.3	-83.3	-89.1
핀란드	179	16	171	16	135	13	-21.1	-18.8	-24.6	-18.8

자료 : GTA

*주 : HS CODE 070959로 검색함

〈 2010년 수입버섯 시장점유율(수입액/수입량) 〉



자료 : G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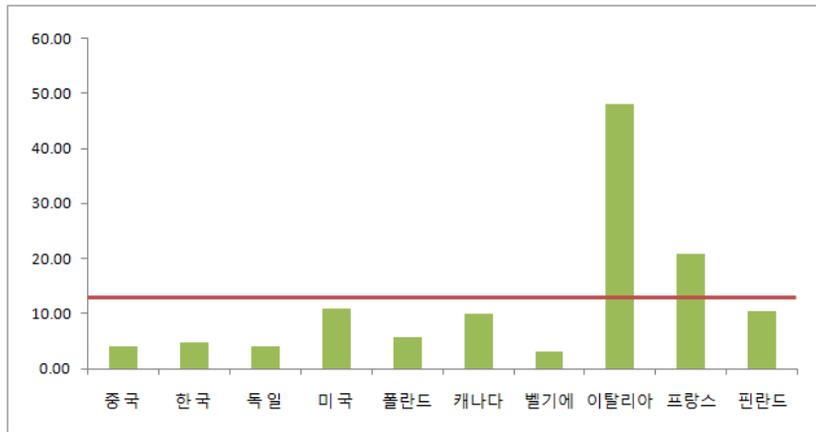
- 반면, 한국산 버섯의 수입규모는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수입량(13%)에 비해 수입액(22.5%)의 감소비율이 큰 것으로 분석되어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산 버섯과의 경쟁이 매우 치열함을 알 수 있음
- 수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이 유일하며, 2008년과 2010년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수입액은 36.7%, 수입량은 무려 70.3%가 증가함
- 반면, 유럽의 대표적인 버섯 수출 국가 중 하나인 폴란드와 이탈리아로부터의 버섯 수입규모는 감소함
- 특히 이탈리아산 버섯은 2008년 25톤에서 2009년에는 47톤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4톤으로, 전년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수입가격 비교

- 2010년 원산지별로 버섯 수입가격을 비교해 보면, 이탈리아 버섯이 48달러로 가장 고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랑스, 미국, 핀란드산 버섯도 10달러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수입되고 있음
- 수입규모 1위인 중국산(3.95달러)과 2위인 한국산(4.66달러), 3위 독일산(3.99달러)의 수입가격은 평균 가격(적색 선)인 12.13달러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벨기에산 버섯이 2.99달러로 가장 저렴함
- 수입가격과 수입규모 동향을 비교해 봤을 때, 수입가격은 수입규모를 결정짓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2010년 원산지별 버섯 수입가격 비교 〉

(단위 : 달러)



자료 : GTA

- 최근 3년간의 원산지별 버섯 수입가격을 보면, 중국과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입산 버섯들의 가격이 2008-09년에는 상승했다가 2009-10년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한국산 버섯은 3년 연속 하락하여 2008년 5.24달러에서 2010년에는 4.66달러를 기록해 -10%의 성장률을 나타냄
- 한국산과 더불어 벨기에산과 핀란드산 버섯도 수입가격의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이탈리아산은 해마다 수입가격이 큰 폭으로 등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2008-09년에는 24.56달러에서 11.94달러로 50% 이상 하락했다가 2010년에는 48달러로 4배 가량 상승함

〈 원산지별 버섯 수입가격 현황 〉

(단위 : 달러)

국가	2008년	2009년	2010년
중 국	4.17	4.24	3.95
한 국	5.24	4.78	4.66
독 일	3.94	4.15	3.99
미 국	13.62	16.09	10.94
폴란드	3.09	6.15	5.69
캐나다	10.76	12.00	9.88
벨기에	3.65	3.09	2.99
이탈리아	24.56	11.94	48.00
프랑스	13.63	20.38	20.86
핀란드	11.19	10.69	10.38
평 균	9.38	9.35	12.13

자료 : GTA

5. 통관 및 수입검사

☐ 통관 거부 사례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유럽 내 채소 제품의 통관 거부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네덜란드로의 채소 수입과정에서 중요한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고자 함
- 3년간 유럽 긴급 경고 시스템(RASFF)에 통관이 거부된 것으로 등록된 채소 제품 사례는 총 222건으로, 살충제 또는 살균제와 같은 농약 검출로 인한 통관 거부 사례가 12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다음으로는 독소 및 중금속 검출(27건), 위생 및 패키지 상태 불량(20건), 곰팡이 발생(17건)의 이유로 빈번하게 통관 거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8-10년 채소 제품 통관 거부 유형 및 건수 〉

통관 거부 유형	적발건수	비 고
독소 및 중금속 검출	27	Aflatoxin(3), Lead(5), Salmonella(4), Sulphite(10)
농약 검출	121	Oxamyl(11), Omethoate(16), Endosulfan(2), Iprodione(2), Dimethoate(15), Prophenophos(3), Chlorpyriphos(6), Fenpropathrin(3), Methamidophos(2), Lindane(1), Cypermethrin(3), Pirimiphos-methyl(2), Carbendazim(9), Carbofuran(4), Malathion(2), Indoxacarb(7), Ethion(4), Dicrrotophos(5), Metalaxyl(3), Cabaryl(1), Methomyl(17), Profenofos(1), Triazophos(2)
위생 및 패키지 상태 불량	20	-
곰팡이 발생	17	-
관능학적 특성 변형	10	-
식품첨가물 과다 검출	7	-
곤충 발견	13	-
부 패	7	-
전 체	222	-

자료 : 유럽 연합 식품 및 사료 긴급 경보 시스템 RASFF 웹사이트

☐ 독소 및 중금속 관련 규정

- 유럽연합은 EC 1881/2006을 통해 독성, 중독성을 지니거나 체내에 축적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독소 및 중금속에 대해 식품 종류별로 아래 표와 같이 최대 허용량을 설정함

〈 독소 및 중금속 최대 허용량 〉

코드	식품명	최대 허용량(mg NO ₃ /kg)	
Section 1. 질산염			
1.1	신선 시금치	10월 1일부터 3월 31일 수확	3,000
		4월 1일부터 9월 30일 수확	2,500
1.2	절임 또는 냉동 시금치		2,000
1.3	신선 상추(fresh lettuce)	10월 1일부터 3월 31일 수확 - 실내 재배	4,500
		- 실외 재배	4,000
		4월 1일부터 9월 30일 수확 - 실내 재배	3,500
		- 실외 재배	2,500
1.4	신선 양상치(Iceberg-type lettuce)	- 실내 재배	2,500
		- 실외 재배	2,000
Section 3. 중금속			
코드	식품명	최대 허용량(mg/kg wet weight)	
3.1	납(lead)		
3.1.10	Brassica 및 잎 채소를 제외한 채소		0.10
3.1.11	Brassica 및 잎 채소		0.30
3.2	카드뮴		
3.2.15	잎 채소, 신선 허브, 줄기 채소, 버섯류, 뿌리 채소를 제외한 채소 및 과일		0.050
3.2.16	줄기 채소, 뿌리 채소 및 감자		0.10
3.2.17	잎 채소, 신선 허브, 샐러리 및 일부 버섯류(일반 버섯, 느타리 버섯, 표고 버섯)		0.20
3.2.18	버섯류(3.2.17 버섯류를 제외한 버섯)		1.0

자료 : http://ec.europa.eu/food/food/chemicalsafety/contaminants/index_en.htm

■ FTA 체결 전후 관세 비교

- 버섯의 관세는 종류에 따라 낮게는 3.2에서 높게는 12.8에 달했으나 FTA 체결에 따라 관세가 즉시 철폐됨
- 이에 따라 한국산 버섯의 수입가격은 다소 낮아져 가격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판단됨

〈 버섯 종류별 기본 관세 및 관세 철폐 시기 〉

CN코드	품목	기본 관세	관세철폐시기
	- 버섯 및 트러플		
0709 51 00	-- 아가리쿠스	12.8	즉시 철폐
070959	-- 기타 버섯		
07095910	--- Chanterelles	3.2	즉시 철폐
0709 59 30	--- Flap Mushrooms	5.6	즉시 철폐
0709 59 50	--- 트러플	6.4	즉시 철폐
0709 59 90	--- 기 타	6.4	즉시 철폐

자료 : 유럽연합

■ 라벨링

- 네덜란드의 라벨링 관련 법규는 영양 성분 라벨링과 기타 라벨링 조건에 관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식품 및 소비자 제품 안전청(Food and Consumer Product Safety Authority, VWA)에서 관리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라벨링 관련 법규 〉

영양성분	Decision No. 438 of 1993 (현지어 제목 : Besluit van 7 September 1993, (Warenwetbesluit voedingswaardeinformatie levensmiddelen), Staatsblad 483/1993)
기타 라벨링 조건	Decision No. 14 of 1991 (현지어 제목 : Vesluit van 10 September 1991 betreffende Warenwetbesluit Etikettering van levensmiddelen, Staatsblad 14/1992)

자료 : www.CBI.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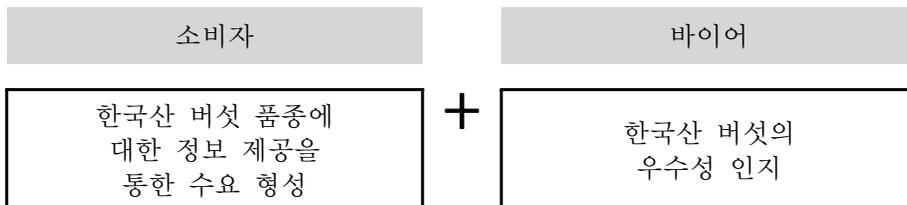
- 일반 제품의 라벨 의무 표기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제품 이름
 - 성분 및 성분 함량 또는 성분 카테고리 : 함량이 높은 순으로 표기, 성분 카테고리 및 특정 성분 순으로 표기
 - 알레르기 유발 성분
 - 유효기간 및 보관 방법
 - 제조회사 이름 및 주소 또는 유럽 연합 내 수입/판매업자
 - 순 중량
 - 영양성분
 - 원산지
- 이 중 신선 과일 및 채소의 경우는 성분 및 성분 함량을 기재할 필요 없음
- 따라서 일반 버섯의 라벨링은 다른 제품보다 매우 단순한 편임
- 네덜란드의 일반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판매 중인 채소의 라벨링은 대부분 비닐에 스티커 부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스티커에 품종, 보관 방법, 중량, 유효기간만 표기되어 있음

< 네덜란드의 버섯 라벨링 예시 >



6. 한국산 수출 확대 방안

- 네덜란드에서 유통되고 있는 버섯 제품은 양송이류가 대부분임
- 팽이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과 같은 한국산 버섯은 네덜란드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하여 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바이어들의 경우 버섯 품종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한국산 버섯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네덜란드 소비자들에게 한국산 버섯류에 대해 알리고 친숙하게 하여 수요를 형성하는 마케팅 노력과 바이어들에게 한국산 버섯의 우수성에 대해 알리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버섯 정보 사이트 운영

- 한국산 버섯만을 홍보하는 대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버섯 패키지에 웹사이트 주소를 게재하여 유럽의 소비자들이 한국산 버섯에 대한 정보를 얻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특히 영양학적인 정보뿐 아니라 현지 소비자들이 버섯을 구입하여 다양한 현지 요리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레시피를 제공하여 한국산 버섯에 대한 친숙함을 주는 것이 중요함
- 아래의 버섯 정보 사이트가 그 대표적인 예로, 'The Mushroom Story'에서는 각종 버섯에 얽힌 이야기, 역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소비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Nutrition'에서는 품종별 영양학적 정보를 소개하며 'Cooking Corner'에서는 다양한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음
- 요리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레시피 및 재료에 대한 정보

를 얻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웹사이트 개설이 필요하며, 특히 대표 웹사이트 주소를 모든 버섯 제품 라벨에 게재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해야 함

- 또한 한국산 버섯을 판매하고 있는 소매점들에 대한 정보를 게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어디에서 한국산 버섯을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판매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버섯 정보 사이트인 freshmushrooms 〉



☐ 유통업체와 연계한 홍보전

-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는 것을 감안할 때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시식을 통해 한국산 버섯을 맛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특히 시식과 더불어 한국산 버섯을 활용한 현지형 요리 레시피를 제작, 배포하여 구매를 촉진해야 함

■ 유럽연합의 유기농 인증

- 네덜란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산 채소는 팽이 버섯으로 패키지가 자체에는 무농약 농산물 또는 유기농이라고 적혀 있음
- 그러나 유럽에서는 한국의 유기농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유럽의 유기농 인증서 없이 유럽 지역, 특히 네덜란드로 수입을 시도할 경우에는 통관이 거부되고 있고 있음
- 따라서 유럽의 유기농 인증을 획득해 보다 까다로운 네덜란드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제품으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음
- 특히 네덜란드에서 판매 중인 표고버섯, 새송이 버섯, 팽이 버섯은 대부분 한국산 또는 중국산이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 중에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어 유기농 인증을 획득할 경우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 할 수 있음

■ 박람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 수입 및 공급업체를 발굴할 수 있는 식음료 관련 박람회로는 매년 독일 Cologne에서 열리는 Anuga FoodTec가 있음
- 또한 프랑스 파리에서 짝수 해마다 개최되는 Sial Paris가 있음

구 분	Anuga FoodTec 2012	Sial Paris
개최시기	2012년 3월 27-30일	2012년 10월 21-25일(격년 개최)
장 소	독일 cologne exhibition centre	파리 the Parc des Expositions Paris Nord Villepinte
웹사이트	www.anugafoodtec.com	www.sialparis.fr

▣ 산업잡지를 통한 회사 및 제품 노출

-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 수입 또는 공급, 생산업체들은 관련 산업 잡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의 우수성 등을 홍보하고 있음
- 유럽의 기존 채소와 다른 특징을 띠고 있는 채소들의 경우는 이러한 잡지에 광고를 함으로써 관심있는 수입업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또한 이러한 잡지들을 통해 수입업체들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접할 수 있도록 제품의 특징 및 활용방법(조리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채소 광고 및 기획기사 예시 >



케냐의 채소 광고

기획 기사

- 또한 이러한 잡지사들의 채소 관련 기자들을 초청하여, 한국산 채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기농법으로 생산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게 함으로써 한국 채소에 대한 내용이 기획 기사로 잡지뿐 아니라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바이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7. 참고자료

 수입/공급업체 및 관련 기관

회사명	위치	전화번호
Agarica B.V.	HOOGEVEEN	0528263909
Agrichamp	VOGELWAARDE	0114671578
Banken Champignons B.V.	INGELMUNSTER	
Baromi B.V.	KERKDRIEL	0418631789
Baron Champignoncultuur B.V.	MARUM	0594641749
Bleij-Vermeulen Beheer B.V.	DREUMEL	0487572829
Bom la Fungi B.V.	ZALTBOMMEL	0302898924
Braam Champignon Cultures B.V.	YERSEKE	0113572386
C.C.B. Champignon Cultuur Beers	BEERS NB	0485312762
C.M.C.	AMERICA	0774642047
Champi-Mer B.V.	KESTEREN	
Champignonbedrijf Van Roij B.V.	WEERT	
Champignoncentrale Maasdriel Holding B.V.	KERKDRIEL	0418634805
Champignoncultuur C. Donkers Boekel B.V.	BOEKEL	0492321713
Champignonkwekerij A.J. van den Nobelen B.V.	STANDDAARBUITEN	0165313121
Champignonkwekerij A.W. van den Dungen V.O.F.	ROSSUM GLD	0418661778
Champignonkwekerij Agaricus B.V.	SEVENUM	0774671745
Champignonkwekerij Arjan Stello	KERKDRIEL	
Champignonkwekerij Beerepoot B.V.	SOMEREN	0493494435
Champignonkwekerij Champibelle B.V.	HORST	0773971370
Champignonkwekerij Erico	VELDDRIEL	0418633846
Champignonkwekerij Ghielen B.V.	NEDERWEERT	0495626121
Champignonkwekerij Gielleit-Buysse	BIERVLIET	0115482075
Champignonkwekerij J.D. Balder B.V.	ZUID-SCHARWOUDE	0226312686
Champignonkwekerij Janssen	VENHORST	0492321873
Champignonkwekerij Kimenai B.V.	DONGEN	0162313235

한·EU FTA 체결에 따른 수출 유망 품목 : 버섯

Champignonkwekerij Koolen	SLOOTDORP	0227603054
Champignonkwekerij L. van Leeuwen	RIJNSBURG	0714030433
Champignonkwekerij Lichtenberg	MAASTRICHT	0433433722
Champignonkwekerij Paul van den Berg B.V.	BOEKEL	0492324068
Champignonkwekerij Smits en Bouw C.V.	ZEELAND	0486453342
Champignonkwekerij Van der Veen	DOEZUM	0594659065
Champignonkwekerij Van Oers-van Kleef	HOENZADRIEL	0418632156
Champignonkwekerij Vissers-Geerts C.V.	LOMM	0774732174
Champignonkwekerij Willems B.V.	KESSEL LB	0774629185
champignons.nl / PR Bureau Champignons		
CNC - Cooperatieve Nederlandse Champignonkwekersvereniging	GENNEP	0485516541
Co perat. Nederl. Champignonkw.ver. BA	GENNEP	0485516541
De Rijk-Stenssen B.V.	ROSSUM GLD	0418664001
Gebr. Leenders Champignoncultuur B.V.	MARIAHOUT	0413209675
Han Mol Champignons B.V.	VENHUIZEN	0228542609
Heeren Champignonkwekerij B.V.	UDEN	0413264569
Heveco Operations	HORST	
Horst Champignons B.V.	HEGELSOM	0773984693
Hoskam Champignonkwekerij	HURWENEN	0418662321
J. Krijnen Champignoncultuur B.V.	KLUNDERT	0168402392
Janssen Champignons B.V.	AMERICA	0774641546
Javaero Champignons B.V.	ZUNDERT	
Johan van Namen B.V.	HOENZADRIEL	0418633571
Keijsers Champignons B.V.	METERIK	0773987203
Kirkels Champignons	WEERT	0495535510
Kouwenberg C.V.	HOENZADRIEL	0418631866
Lekkamp Champ B.V.	HOENZADRIEL	0418632179
Marius van Namen B.V.	KERKDRIEL	0418631789
Michels Champignoncultures	MERSELO	0478546294
Nooijen Champignons B.V.	HELENAVEEN	0493539731
Ostrea V.O.F.	DE MOER	

P.P.W.J. van den Oord	HEDEL	0735949434
Peffer B.V.	KERKDRIEL	0418632330
Peter van Asseldonk B.V.	VEGHEL	0413340492
Peter van den Berg Champignons B.V.	BOEKEL	0492324069
Polman-van Houtum B.V.	BOEKEL	0492321797
Rob Leenders Champignons B.V.	MARIAHOUT	0413209512
Rucha	VELDDRIEL	
Stender B.V.	BOEKEL	0492322802
Sunrise Mushrooms	LEERBROEK	0345599655
Teeuwen Champignoncultuur B.V.	HELDEN	0773072459
Thijko V.O.F.	GRASHOEK	0493536053
V.O.F. 'Van Dongen'	ZEELAND	0486453347
V.O.F. Ackermans Van Wel	KERKDRIEL	0418637080
V.O.F. Champignonkwekerij Hawico	DREUMEL	0487571732
V.O.F. H. Knijnenburg	DEURNE	0493317591
V.O.F. Hateri	WAMEL	0487501366
V.O.F. Paulissen-Everts Champignoncultuur	SWOLGEN	0478691721
V.O.F. Van den Oever-van Dommelen	VEGHEL	0413352263
V.O.F. Veeke en Veeke	KLUNDERT	0168402785
Van Asseldonk Champignons	BOEKEL	0492323923
Van den Elsen Champignons V.O.F.	SINT OEDENRODE	0413473088
Van Dooren	LIESSEL	0493341476
Van Es Foods International B.V.	BABBERICH	0316248510
Van Lieshout-van Gog B.V.	LIESSEL	0493341319
Verbruggen Paddestoelen V.O.F	ERP	0413211893
Verburg Champignons	NIEUWEGEIN	
Vereniging Paddenstoelenteelt Nederland(VPN)	ZALTBOMMEL	
Verschoor Champignonkwekerij B.V.	BREEZAND	0594613959
Vervoortchampi B.V.	ERP	0413213482
W. Geurts Champignonkwekerij B.V.	MILHEEZE	0492342925
Worldchamp Sorteer B.V.	KERKDRIEL	0735996111

부 록



▣ 농약 관련 규정

- 현재 유럽에서 농약 잔류량 허용치를 정해 놓고 있는 농약의 수는 무려 400여 가지에 달하고 있어 제품별, 농약별 농약 잔류량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가능함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농약 잔류량 초과를 이유로 통관 거부된 사례가 많은 농약을 중심으로 최대 허용 잔류량을 살펴봄

〈 버섯의 농약별 최대 허용 잔류량 〉

(단위 : mg/kg)

코드번호	품목명	Carbendazim	Chlorpyrifos	Dimethoate	Oxamyl
200000	2. 신선 또는 냉동 채소				
210000	(i) 구근 채소	0,1*			0,01*
211000	(a) Potatoes	0,1*	0,05*	0,02*	0,01*
212000	(b) Tropical root and tuber vegetables	0,1*	0,05*	0,02*	0,01*
212010	Cassava(Dasheen, eddoe(Japanese taro), tannia)	0,1*	0,05*	0,02*	0,01*
212020	Sweet potatoes	0,1*	0,05*	0,02*	0,01*
212030	Yams(Potato bean(yam bean), Mexican yam bean)	0,1*	0,05*	0,02*	0,01*
212040	Arrowroot	0,1*	0,05*	0,02*	0,01*
212990	기 타	0,1*	0,05*	0,02*	0,01*
213000	(c) Other root and tuber vegetables except sugar beet	0,1*			0,01*
213010	Beetroot	0,1*	0,05*	0,02*	0,01*
213020	Carrots	0,1*	0,1	0,02*	0,01*
213030	Celeriac	0,1*	0,05*	0,1	0,01*
213040	Horseradish(Angelicaroots, lovageroots, gentianaroots,)	0,1*	0,05*	0,02*	0,01*
213050	Jerusalem artichokes	0,1*	0,05*	0,02*	0,01*
213060	Parsnips	0,1*	0,05*	0,02*	0,01*
213070	Parsley root	0,1*	0,05*	0,02*	0,01*
213080	Radishes(Blackradish, Japaneseradish, smallradishandsimilarvarieties, tigernut(Cyperusesculentus))	0,1*	0,2	0,02*	0,01*

한·EU FTA 체결에 따른 수출 유망 품목 : 버섯

213090	Salsify(Scorzonera, Spanish salsify(Spanish oysterplant))	0,1*	0,05*	0,02*	0,01*
213100	Swedes	0,1*	0,05*	0,02*	0,01*
213110	Turnips	0,1*	0,05*	0,02*	0,01*
213990	Others	0,1*	0,05*	0,02*	0,01*
220000	(ii) Bulb vegetables	0,1*			0,01*
220010	Garlic	0,1*	0,05*	0,02*	0,01*
220020	Onions(Silverskin onions)	0,1*	0,2	0,02*	0,01*
220030	Shallots	0,1*	0,05*	0,02*	0,01*
220040	Spring onions(Welsh onion and similar varieties)	0,1*	0,05*	2	0,01*
220990	Others	0,1*	0,05*	0,02*	0,01*
230000	(iii) Fruiting vegetables			0,02*	
231000	(a) Solanacea		0,5	0,02*	
231010	Tomatoes(Cherrytomatoes, tree tomato, Physalis, gojiberry, wolfberry (Lycium barbarum and L. chinense))	0,5	0,5	0,02*	0,02
231020	Peppers(Chilli peppers)	0,1*	0,5	0,02*	0,02
231030	Aubergines(egg plants)(Pepino)	0,5	0,5	0,02*	0,02
231040	Okra, lady's fingers	2	0,5	0,02*	0,01*
231990	Others	0,1*	0,5	0,02*	0,01*
232000	(b) Cucurbits - edible peel	0,1*	0,05*	0,02*	
232010	Cucumbers	0,1*	0,05*	0,02*	0,02
232020	Gherkins	0,1*	0,05*	0,02*	0,02
232030	Courgettes(Summer squash, marrow(patisson))	0,1*	0,05*	0,02*	0,03
232990	Others	0,1*	0,05*	0,02*	0,01*
233000	(c) Cucurbits-inedible peel	0,1*	0,05*	0,02*	0,01*
233010	Melons(Kiwano)	0,1*	0,05*	0,02*	0,01*
233020	Pumpkins(Winter squash)	0,1*	0,05*	0,02*	0,01*
233030	Watermelons	0,1*	0,05*	0,02*	0,01*
233990	Others	0,1*	0,05*	0,02*	0,01*
234000	(d) Sweet corn	0,1*	0,05*	0,02*	0,01*
239000	(e) Other fruiting vegetables	0,1*	0,05*	0,02*	
240000	(iv) Brassica vegetables			0,02*	0,01*
241000	(a) Flowering brassica	0,1*	0,05*	0,02*	0,01*
241010	Broccoli(Calabrese, Chinese broccoli, broccoli raab)	0,1*	0,05*	0,02*	0,01*

241020	Cauliflower	0,1*	0,05*	0,02*	0,01*
241990	Others	0,1*	0,05*	0,02*	0,01*
242000	(b) Head brassica			0,02*	0,01*
242010	Brussels sprouts	0,5	0,05*	0,02*	0,01*
242020	Head cabbage(Pointed head cabbage, red cabbage, savoy cabbage, white cabbage)	0,1*	1	0,02*	0,01*
242990	Others	0,1*	0,05*	0,02*	0,01*
243000	(c) Leafy brassica	0,1*		0,02*	0,01*
243010	Chinese cabbage(Indian(Chinese) mustard, pak choi, Chinese flat cabbage(tai goo choi), choi sum, peking cabbage(pe-tsai),)	0,1*	0,5	0,02*	0,01*
243020	Kale(Borecole(curlykale), collards, PortugueseKale, Portuguesecabbage, cowcabbage)	0,1*	0,05*	0,02*	0,01*
243990	Others	0,1*	0,05*	0,02*	0,01*
244000	(d) Kohlrabi	0,1*	0,05*	0,02*	0,01*
250000	(v) Leaf vegetables & fresh herbs	0,1*	0,05*	0,02*	0,01*
251000	(a) Lettuce and other salad plants including Brassicacea	0,1*	0,05*	0,02*	0,01*
251010	Lamb's lettuce(Italian cornsalad)	0,1*	0,05*	0,02*	0,01*
251020	Lettuce(Head lettuce, lollo rosso(cutting lettuce), iceberg lettuce, romaine(cos) lettuce)	0,1*	0,05*	0,02*	0,01*
251030	Scarole(broad-leaf endive)(Wild chicory, red-leaved chicory, radicchio, curld leave endive, sugar loaf)	0,1*	0,05*	0,02*	0,01*
251040	Cress	0,1*	0,05*	0,02*	0,01*
251050	Land cress	0,1*	0,05*	0,02*	0,01*
251060	Rocket, Rucola(Wild rocket)	0,1*	0,05*	0,02*	0,01*
251070	Red mustard	0,1*	0,05*	0,02*	0,01*

한·EU FTA 체결에 따른 수출 유망 품목 : 버섯

251080	LeavesandsproutsofBrassicasp(Mizuna, leavesofpeasandradishandotherbabyleafbrassicacrops(cropsharvestedupto8trueleafstage))	0,1*	0,05*	0,02*	0,01*
251990	Others	0,1*	0,05*	0,02*	0,01*
252000	(b) Spinach & similar(leaves)	0,1*	0,05*	0,02*	0,01*
252010	Spinach(NewZealandspinach, amaranthusspinach)	0,1*	0,05*	0,02*	0,01*
252020	Purslane(Winterpurslane(miner's lettuce), gardenpurslane, common purslane, sorrel, glassworth, Agretti(Salsolasoda))	0,1*	0,05*	0,02*	0,01*
252030	Beet leaves(chard)(Leaves of beetroot)	0,1*	0,05*	0,02*	0,01*
252990	Others	0,1*	0,05*	0,02*	0,01*
253000	(c) Vine leaves(grape leaves)	0,1*	0,05*	0,02*	0,01*
254000	(d) Water cress	0,1*	0,05*	0,02*	0,01*
255000	(e) Witloof	0,1*	0,05*	0,02*	0,01*
256000	(f) Herbs	0,1*	0,05*	0,02*	0,01*
256010	Chervil	0,1*	0,05*	0,02*	0,01*
256020	Chives	0,1*	0,05*	0,02*	0,01*
256030	Celeryleaves(Fennelleaves, Corianderleaves, dillleaves, Carawayleaves, lovage, angelica, sweetciselyandotherApiacealeaves)	0,1*	0,05*	0,02*	0,01*
256040	Parsley	0,1*	0,05*	0,02*	0,01*
256050	Sage(Winter savory, summer savory)	0,1*	0,05*	0,02*	0,01*
256060	Rosemary	0,1*	0,05*	0,02*	0,01*
256070	Thyme(Marjoram, oregano)	0,1*	0,05*	0,02*	0,01*
256080	Basil(Balm leaves, mint, peppermint)	0,1*	0,05*	0,02*	0,01*
256090	Bay leaves(laurel)	0,1*	0,05*	0,02*	0,01*
256100	Tarragon(Hyssop)	0,1*	0,05*	0,02*	0,01*
256990	Others(Edibleflowers)	0,1*	0,05*	0,02*	0,01*
260000	(vi) Legume vegetables(fresh)		0,05*	0,02*	0,01*

260010	Beans(with pods)(Green bean(french beans, snap beans), scarlet runner bean, slicing bean, yardlong beans)	0,2	0,05*	0,02*	0,01*
260020	Beans(without pods)(Broad beans, Flageolets, jack bean, lima bean, cowpea)	0,1*	0,05*	0,02*	0,01*
260030	Peas(with pods)(Mangetout(sugar peas, snow peas))	0,2	0,05*	0,02*	0,01*
260040	Peas(without pods)(Garden pea, green pea, chickpea)	0,1*	0,05*	0,02*	0,01*
260050	Lentils	0,1*	0,05*	0,02*	0,01*
260990	Others	0,1*	0,05*	0,02*	0,01*
270000	(vii) Stem vegetables(fresh)	0,1*		0,02*	0,01*
270010	Asparagus	0,1*	0,05*	0,02*	0,01*
270020	Cardoons	0,1*	0,05*	0,02*	0,01*
270030	Celery	0,1*	0,05*	0,02*	0,01*
270040	Fennel	0,1*	0,05*	0,02*	0,01*
270050	Globe artichokes	0,1*	1	0,02*	0,01*
270060	Leek	0,1*	0,5	0,02*	0,01*
270070	Rhubarb	0,1*	0,05*	0,02*	0,01*
270080	Bamboo shoots	0,1*	0,05*	0,02*	0,01*
270090	Palm hearts	0,1*	0,05*	0,02*	0,01*
270990	Others	0,1*	0,05*	0,02*	0,01*
280000	(viii) Fungi		0,05*	0,02*	0,01*
280010	Cultivated(Common mushroom, Oyster mushroom, Shi-take)	1	0,05*	0,02*	0,01*
280020	Wild(Chanterelle, Truffle, Morel, Cep)	0,1*	0,05*	0,02*	0,01*
280990	Others		0,05*	0,02*	0,01*

자료 : http://ec.europa.eu/sanco_pesticides/public/index.cfm?event=substance_resultat&s=1

*주 : 유럽연합에서는 dimethoate와 omethoate를 통합하여 dimethoate라고 칭함

한·EU FTA 체결에 따른 수출유망품목(버섯)

발행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발행일 : 2011년 1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조사참여 : 유럽 - 로테르담 aT센터

총괄 - 식품수출정보팀(오유경)

문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

02) 6300-1399

본 자료는 KATI(www.kati.net) > 무역정보 > 발간책자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우리 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부정비리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신자부담 「24시간 부정비리 신고 모바일 핫라인(080-112-2580)」을 개설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